제155호(2017. 10. 13.)

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

성재훈 이혜진 정학균

목 차
contents

1.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현황 ····· 1

2.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와 전망 ····· 9

3. 세계 유기농업의 현황 ····· 12

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심재헌 연구위원	061-820-2196	jhsim@krei.re.kr
내용 문의	성재훈 부연구위원	061-820-2348	jsung@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본 연구는 지난 8월 23일 발간된 「현안분석」 "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을 전문가 및 인증기관 조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내용임.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155호

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7. 10.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ISBN | 979-11-6149-053-3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요 약
Summary

○ **2012년 이후 감소하던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실적은 2016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됨.**

- 2016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년 대비 약 5.8% 증가한 79.5천 ha이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4.2% 증가한 571.2천 톤임.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출하량 증가와 가격상승으로 2016년 회복세에 들어섬.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1조 4,665억 원으로 추정됨.**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연평균 5.9% 성장하여 2025년에는 2조 4,563억 원(유기농산물 5,543억 원, 무농약농산물 1조 9,01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규모는 2000년 이후 공급보다 수요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유기농식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출에 관한 전략이 필요함.**

- 2015년 세계 유기농 식품 · 음료 시장규모는 8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임.
- 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세계 유기농 식품 · 음료 시장은 356% 성장한 반면, 유기농경지 면적은 240% 증가하여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신뢰도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안정적인 생산 토대 구축을 위해 지역별·품목별로 특화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유기농산물 생산의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17년 6월 이후 민간 주도로 인증체계가 전환됨.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증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과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

○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현재 준비 중인 농식품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상호준수 프로그램인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과 확산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생산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친환경농산물 관련 자료 및 통계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 혹은 이해당사자가 인지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 이는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어려움으로 작용함.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시장,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태 변화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 구축과 연구가 필요함.**

01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현황

2016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

□ 2016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은 2015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음.

○ 2012년 이후 국내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
- 2013년에서 2015년까지의 인증면적과 출하량의 연평균 감소율은 각각 12.3%와 17.8%에 이름.
- 구체적으로 무농약(유기농) 인증면적은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연평균 44.8%(37.9%)씩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2012년에서 2015년까지 매년 14.4%(8.7%)씩 감소하였음. 무농약(유기농) 농산물 출하량은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연평균 -18.8%(-13.4%)씩 감소하였음.
- 이는 우선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일어난 부실인증 사례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었기 때문임. 또한 2013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산기술이 부족한 친환경 농가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임(정학균 외 2016,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ha당 출하량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ha당 출하량은 각각 연평균 5.8%와 6.3%씩 감소함. 이는 친환경농산물과 관행농산물의 산지 가격 차이가 줄어듦에 따라 농가들이 유통이 까다로운 일부 친환경농산물을 관행농산물로 출하하기 때문임.

○ 2016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년 대비 약 5.8% 증가한 79.5천 ha이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4.2% 증가한 571.2천 톤임.
- 특히 무농약농산물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약 96천 톤이 증가하였으며, 무농약농산물 인증면적 또한 2.6천 ha 증가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상승을 주도함.
-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의 ha당 출하량 또한 작년 대비 6.4% 그리고 20.6% 증가하였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출하량은 각각 전년 대비 약 5.8%, 24.2% 증가

〈표 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 추이

구 분		2000	2012	2013	2014	2015	2016	2000~12년 연평균 증가율 (%)	2012~15년 연평균 증가율 (%)	전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 (%)
유기	농가 수(천 호)	0.4	16.7	13.9	11.6	11.6	12.9	37.9	-8.7	11.1
	면적(천 ha, A)	0.3	25.5	21.1	18.3	18.1	19.9	45.0	-8.1	9.5
	호당면적	0.8	1.5	1.5	1.6	1.6	1.5	5.1	0.6	-1.4
	비중(A/D)	0.02	1.47	1.23	1.08	1.08	1.21	46.0	-7.5	11.9
	출하량(천 톤)	6.5	168.3	117.0	95.7	94.4	110.1	31.1	-13.4	16.5
	ha당 출하량(톤)	22.1	6.6	5.5	5.2	5.2	5.5	-9.6	-5.8	6.4
무농약	농가 수(천 호)	1.1	90.2	89.6	56.8	48.4	49.1	44.8	-14.4	1.3
	면적(천 ha, B)	0.9	101.6	98.0	65.1	57.0	59.6	48.6	-13.5	4.6
	호당면적	0.8	1.1	1.1	1.1	1.2	1.2	2.6	1.1	3.2
	비중(%, B/D)	0.05	5.87	5.73	3.85	3.39	3.63	49.7	-12.8	6.9
	출하량(천 톤)	15.7	841.5	693.3	479.4	365.6	461.2	39.4	-18.8	26.1
	ha당 출하량(톤)	17.9	8.3	7.1	7.4	6.4	7.7	-6.2	-6.2	20.6
합계	농가 수(천 호)	1.4	107.0	103.5	68.4	60.0	61.9	43.4	-13.5	3.2
	면적(천 ha, C)	1.2	127.1	119.1	83.4	75.1	79.5	47.8	-12.3	5.8
	호당면적	0.8	1.2	1.2	1.2	1.3	1.3	3.0	1.3	2.5
	비중(C/D)	0.06	7.34	6.96	4.93	4.47	4.84	48.9	-11.7	8.1
	출하량(천 톤)	22.2	1,009.8	810.3	575.1	460.1	571.2	37.4	-17.8	24.2
	ha당 출하량(톤)	19.0	7.9	6.8	6.9	6.1	7.2	-7.0	-6.3	17.4
경지면적(천 ha, D)		1,889	1,730	1,711	1,691	1,679	1,644	-0.7	-0.7	-2.1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경지면적은 통계청의 농업면적조사를 바탕으로 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수는 작년 대비 1.9천 호 증가한 61.9천 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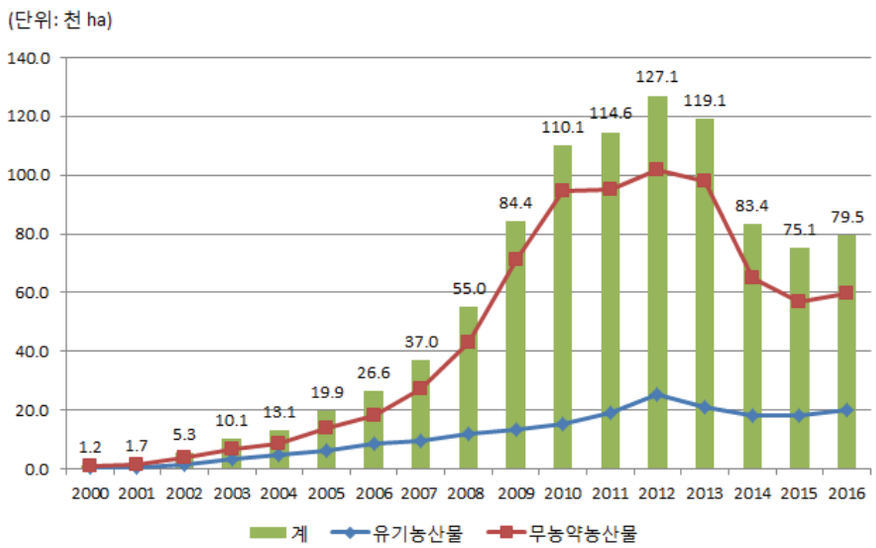
- 2016년 무농약농산물 인증농가는 전년 대비 0.7천 호 증가한 49.1천 호, 유기농산물 인증농가는 전년 대비 1.3천 호 증가한 12.9천 호임.

○ 2012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농가의 경지 규모화 추세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향후 친환경농산물 시장의 증가에 대비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생산농가의 평균 인증면적은 연간 5.1%(2.6%)씩 증가하였음. 하지만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의 평균 인증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0.6%(1.1%)에 그침.
- 특히 2016년 유기농산물 호당 평균 인증면적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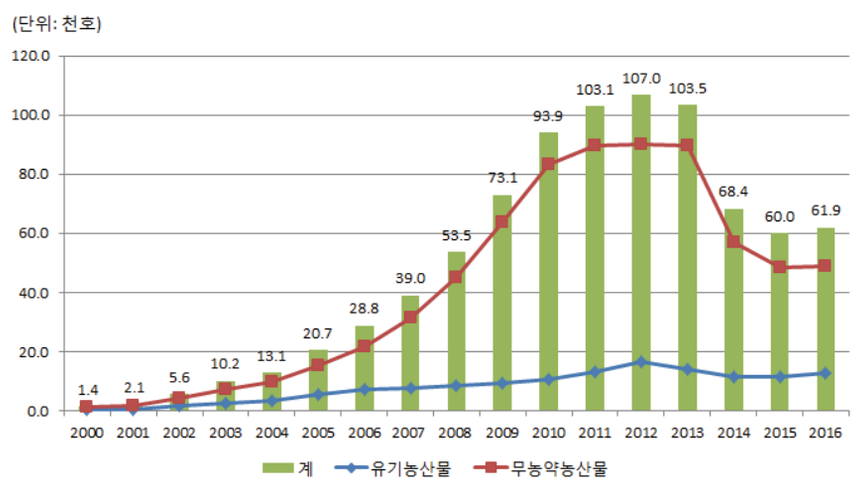
유기농산물 인증실적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

〈그림 1〉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변화 추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그림 2〉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변화 추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 2000년 이후,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실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의 70% 이상을 차지함.

-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의 변화는 무농약농산물 인증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음(〈그림 1〉, 〈그림 2〉 참조).
- 예를 들어, 2012년 이후 무농약농산물의 인증면적과 생산농가 수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면적과 생산농가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됨.

○ 이에 반해 2000년 이후 유기농산물의 인증면적과 농가호수는 2013년과 2014년을 제외한 모든 시기에서 꾸준히 증가하였음.

- 2000년 이후, 유기농 인증농가 수는 연평균 약 25.2% 증가하였으며,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이보다 큰 연평균 약 30.0% 증가하였음.
- 호당 유기농 인증면적의 연간 증가율은 3.9%이며, 이는 호당 무농약 인증면적 연간 증가율 2.4%보다 큰 수치임.
- 2016년 유기농산물 생산농가의 평균 인증면적은 1.5ha로 무농약농산물 생산농가의 평균 인증면적의 1.2ha보다 약 0.3ha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 친환경농산물 품목별·인증단계별 출하 현황(2016)

단위: 톤, %

품목별	유기	무농약	계	전년 대비 증가율
곡류	49,247 (44.7)	184,156 (39.9)	233,403 (40.9)	37.5
- 쌀	13,040 (11.8)	23,492 (5.1)	36,531 (6.4)	-60.8
- 벼	29,029 (26.4)	156,242 (33.9)	185,271 (32.4)	171.0
- 기타곡물	7,179 (6.5)	4,422 (0.1)	11,601 (2.0)	43.4
채소류	36,458 (33.1)	109,393 (23.7)	145,851 (25.5)	15.4
특용작물	4,291 (3.9)	116,563 (25.3)	120,854 (21.2)	3.8
과실류	12,146 (7.9)	32,815 (11.0)	44,961 (7.6)	93.5
서류	2,848 (2.8)	13,252 (2.6)	16,100 (2.9)	13.9
기타	5,064 (4.6)	4,984 (1.1)	10,048 (1.8)	-1.7
합 계	110,054 (100)	461,163 (100)	571,217 (100)	24.2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 친환경농산물 품목별로는 곡류(40.9%)가 가장 높은 출하량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를 채소류(25.5%)와 특용작물(21.2%)이 따름.

- 인증단계별로는 기타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무농약농산물의 비중이 전체 친환경농산물의 70% 이상을 차지함. 특히, 무농약 특용작물이 친환경 특용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6.4%로 다른 품목에 비해 매우 높음.

○ 전년 대비 출하량 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은 과실류(93.5%)이며, 곡류(37.5%)와 채소류(15.4%)가 그 뒤를 따름.

○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 증가량(111천 톤)의 57.2%는 곡류 출하량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곡류 출하량 증가는 친환경 벼의 출하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2016년 친환경 벼 출하량(185천 톤)은 2015년 대비 171.0% 증가한 반면, 2016년 친환경 쌀 출하량(36천 톤)은 2015년 친환경 쌀 출하량의 39.2%에 그침.
- 이에 따라 친환경 쌀이 곡물 전체 출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5.0%에서 15.7%로 감소한 반면, 친환경 벼가 곡물(친환경농산물) 전체 출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83.5%(32.4%)에 육박함.
- 이러한 친환경 벼의 출하량 증가는 일부 인증기관이 2016년 이후 친환경 쌀이 아닌 친환경 벼로만 인증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임.

○ 친환경 곡물의 실질 출하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벼의 도정량을 감안해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친환경 곡물의 시장 출하량이 과대평가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만약 도정률 72%를 적용하여 친환경 벼를 친환경 쌀로 변화시킬 경우, 2016년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 2015년에 비해 17.6% 증가한 519.3천 톤임.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량 대비 출하량 비중 증가 역시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됨.
- 주요 15개 품목에 대한 인증량 대비 출하량 분석 결과, 5개 품목(감자, 양파, 오이, 고구마, 사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인증량 대비 출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벼의 경우, 인증량 대비 출하량 비중이 46.5%에서 80.9%로 증가하였으며, 딸기의 인증량 대비 출하량 비중은 2015년 32.5%에서 2016년 70.5%로 증가하였음.
- 이러한 인증량 대비 출하량의 증가는 농민들이 관행 농산물로 출하하던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줄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하지만 친환경농산물 출하량과 인증량 대비 출하량 증가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우선 인증량과 출하량은 농가들의 실제 생산량과 출하량과 다소 차이가 있음.
-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혹은 전문가들조차 농가들이 작년과 대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량 대비 출하량을 증가시킨 뚜렷한 요인을 찾지 못함.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절반 이상이 전남에 위치

〈표 3〉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및 출하량(2016)

단위: ha, 톤, %

구분		유기	무농약	계	전년 대비 인증면적 증가율	인증 면적 비중	경지 면적 비중
경기	면적	1,816	3,667	5,483	3.1	6.90	2.90
	출하량	11,329	103,267	114,596			
강원	면적	1,653	2,630	4,283	2.0	5.39	4.11
	출하량	18,159	19,779	37,938			
충남	면적	2,621	3,609	6,230	0.2	7.84	2.74
	출하량	19,141	33,184	52,325			
충북	면적	922	2,685	3,607	18.3	4.54	3.30
	출하량	8,343	35,793	44,136			
경남	면적	1,701	3,683	5,384	3.2	6.77	3.24
	출하량	7,987	92,555	100,542			
경북	면적	1,206	3,802	5,008	-5.2	6.30	1.87
	출하량	8,550	55,281	63,831			
전남	면적	6,576	33,700	40,276	9.6	50.68	13.08
	출하량	18,722	83,857	102,579			
전북	면적	1,947	4,852	6,799	3.8	8.55	3.39
	출하량	10,519	22,510	33,029			
제주	면적	1,420	989	2,409	-5.8	3.03	3.88
	출하량	7,304	14,937	22,241			
계	면적	19,862	59,617	79,479	5.8	100.00	4.84
	출하량	110,054	461,163	571,217			

주: 광역시의 자료는 도별 실적에 포함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통계청.

□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절반 이상인 4만 276ha가 전남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전남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8.6%)과 충남(7.8%)이 그 뒤를 따름.

- 전년 대비 인증면적의 증가율은 충북(18.3%)이 가장 크며, 그 뒤를 전남(9.6%)과 전북(3.8%)이 따름.
- 충북의 경우, 2015년 세계유기농산업 엑스포 유치 등 지자체 차원의 유기농업 확대 정책으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증가폭이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생각됨.
- 이에 반해, 경북과 제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5년에 비해 각각 5.2%,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대비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58.9%), 전남은 16.3%로 유기농산물 인증면적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남.

유기식품 수입물량은 전년 대비 79.0% 증가

〈표 4〉 최근 5년간 수입유기식품 현황

단위: 천 건, 천 톤, 천 달러, %

구분	수입식품			수입유기식품		
	건수	물량	금액	건수	물량	금액
2010	294	12,906	10,335,539	4.1(1.4%)	26(0.2%)	49,730(0.5%)
2011	313	13,471	13,195,077	4.0(1.3%)	27(0.2%)	59,249(0.4%)
2012	326	13,757	14,370,106	2.3(0.7%)	22(0.2%)	43,707(0.3%)
2013	353	13,645	14,690,746	2.4(0.7%)	21(0.2%)	54,238(0.4%)
2014	393	14,185	14,625,526	0.9(0.2%)	15(0.1%)	28,844(0.2%)
2015	426	14,740	14,432,280	2.3(0.5%)	26(0.2%)	55,160(0.4%)
증감률	+7.7	+2.7	+7.4	+8.7	+6.2	+12.3

주: ( )는 전체 수입식품 중 유기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6).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 2015년 유기식품 수입 건수·물량·금액 대폭 증가

○ 2015년 전체 식품수입액 중 수입유기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4%에 불과함.

○ 비록 수입식품의 건수 · 물량 ·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수입유기식품의 건수 · 물량 · 금액은 2010년 이후 모두 감소세를 보이며 2014년에 최저점을 기록하였음.

○ 하지만 2015년 다시 반등하여 수입유기식품은 전년 대비 건수 142.5%, 물량 79.0%, 금액 12.3% 증가하였음.

○ 유기식품의 품목별 수입현황은 중량 순으로 바나나/신선 · 냉장, 갈색설탕, 과채가공품 등임. 국가별로는 페루, 터키, 브라질, 미국 등에서 유기식품을 다량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페루에서는 바나나, 브라질에서는 갈색설탕, 터키에서는 밀(알곡)과 과채가공품을 주로 수입함.
- 중량 순으로는 바나나/신선 · 냉장의 수입량이 가장 많으나 수입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는 과채가공품이 가장 많이 수입되었음.
- 중량 순으로는 페루에서 수입하는 양이 가장 많았으나 건수 ·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가장 높음.

2016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21.0% 증가한 1조 4,665억 원

〈표 5〉 유기식품 품목·국가별 수입 현황(2015년 기준)

순번	품목(중량 순)	중량(kg)	제조국(중량 순)	중량(kg)
1	바나나/신선·냉장	2,012,906	페루	5,236,046
2	갈색설탕	4,637,457	터키	4,071,257
3	과채가공품	3,406,603	브라질	2,944,097
4	밀/알곡	2,620,009	미국	2,056,711
5	당류가공품	1,335,749	호주	1,643,896
6	밀/밀(제분용)	1,255,430	중국	1,425,294
7	밀가루	962,115	콜롬비아	1,355,872
8	침출차	897,608	이탈리아	1,106,480
9	대두/건조	874,387	캐나다	918,649
10	과채음료	466,060	태국	882,337
11	과채주스	399,152	독일	746,904
12	백설탕	380,095	필리핀	688,968
13	바나나/신선	322,244	멕시코	600,559
14	야자유	277,493	아르헨티나	406,628
15	블루베리/열매/냉동	272,274	폴란드	335,400
16	커피/건조	242,557	칠레	279,055
17	파스타류	192,279	네덜란드	234,481
18	콩기름(대두유)	179,196	뉴질랜드	218,555
19	기타가공품	177,838	파라과이	212,000
20	참다래/신선·냉장	143,644	프랑스	180,033

주: 품목 및 국가 정렬기준–중량의 상위 20개 품목.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2016).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02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와 전망

□ 2016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1조 4,665억 원 수준임.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인증단계별 · 품목별 출하량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 대표 15개 품목 가격자료와 유통업체의 수수료 및 유통비용 등을 고려하여 개괄적으로 산출함.[1)]

○ 또한 시장규모 추정을 위해 2015년과 2016년 친환경 벼 출하량을 평균 도정률(72%)을 적용하여 친환경 쌀 출하량으로 변환하였음.

〈표 6〉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단계별 · 품목별 시장 거래규모(2016)

단위: 억 원, %

구 분	유기농	무농약	계	2015년 시장규모	전년 대비 증가율
곡류	1,494	3,723	5,217	4,843	7.73
채소류	968	2,650	3,617	2,754	31.4
과실류	582	1,252	1,834	1,021	79.7
서류	131	480	611	544	12.4
특작기타	706	2,681	3,387	2,960	14.4
계	3,880	10,786	14,665	12,121	21.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2017. 7.). 2015년 시장규모 추정 시 저농약 농산물의 시장규모는 제외하였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시장 유통 비중과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친환경농산물 15개 품목의 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함.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친환경농산물 인증제가 강화된 2013년부터는 그 감소폭이 더욱 커짐. 하지만 2016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 및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21.0% 증가한 1조 4,665억 원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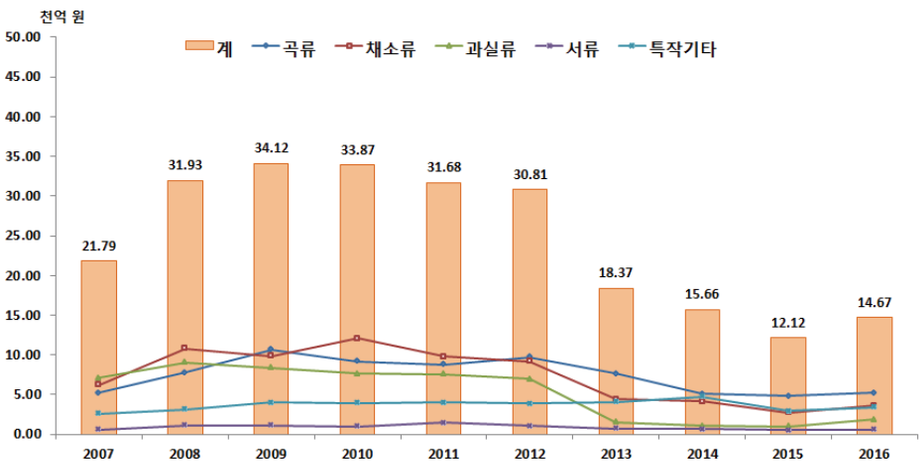
○ 품목별로는 곡류(5,217억 원)가 가장 큰 시장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소류(3,617억 원)와 특작기타(3,387억 원)가 그 뒤를 따름.

- 특히 친환경과실류의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출하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품목 중 가장 가파르게 성장함(전년 대비 79.7%).

1) 대표 15개 품목은 쌀, 풋고추, 무, 배추, 상추, 토마토, 딸기, 오이, 양파, 사과, 배, 감귤, 감자, 고구마, 그리고 팽이버섯임. 각 품목의 가격 단위를 원/kg으로 전환하기 위해 배추 1포기는 3kg, 무 1개 0.8kg, 감귤 10개 1kg, 배 10개 3kg, 오이 10개 1.5kg이라 가정함. 각 품목별 기타 작물의 시장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각 품목에 속한 대표작물 3개의 평균 가격을 이용하였으며, 3개의 대표 작물은 출하량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25년 2조 4,5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그림 3〉 품목류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변화



자료: 2015년 이전에 추정된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친환경 벼의 도정률을 감안해 주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시장규모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

〈표 7〉 품목류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5
곡 류	5,217	7,508	7,863	8,218	8,573	10,352
채소류	3,617	4,700	4,785	4,871	4,956	5,382
과실류	1,834	1,579	1,675	1,771	1,867	2,346
서 류	607	875	909	943	976	1,145
특작·기타	3,387	4,256	4,391	4,526	4,661	5,337
총 계	14,665	18,919	19,624	20,329	21,034	24,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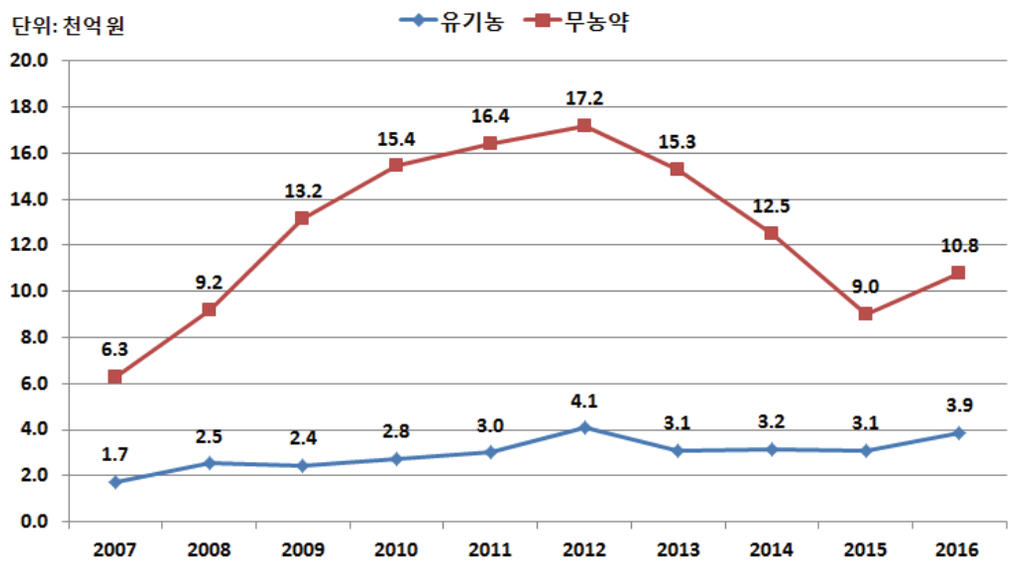
자료: 2006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를 추세 분석한 결과임.

□ 2017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를 예측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추정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별 그리고 품목별 시장규모를 추세 분석하였음.

○ 추세 분석 결과,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연평균 5.9% 성장하여 2020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조 1,034억 원으로 증가하며, 2025년에는 2조 4,56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4〉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변화



자료: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를 추세 분석한 결과임. 2015년 이전에 추정된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친환경 벼의 도정률을 감안해 주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시장규모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

○ 무농약농산물 시장은 2007년에서 2012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2012년에서 2015년까지는 연평균 7.0%씩 지속적으로 감소함. 이에 반해 유기농산물 시장의 경우, 큰 변화 없이 2007년 이후 연평균 약 11%씩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유기농산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은 유기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반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유기농산물의 시장규모는 연평균 4.0%씩 증가하여 2025년 5,54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무농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유기농산물보다 빠른 연평균 6.5%씩 증가하여 2025년 1조 9,01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표 8〉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5
유기농	3,880	4,007	4,199	4,391	4,583	5,543
무농약	10,786	14,911	15,424	15,938	16,451	19,019
전 체	14,665	18,918	19,624	20,329	21,034	24,563

자료: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를 추세 분석한 결과임.

03 세계 유기농업의 현황[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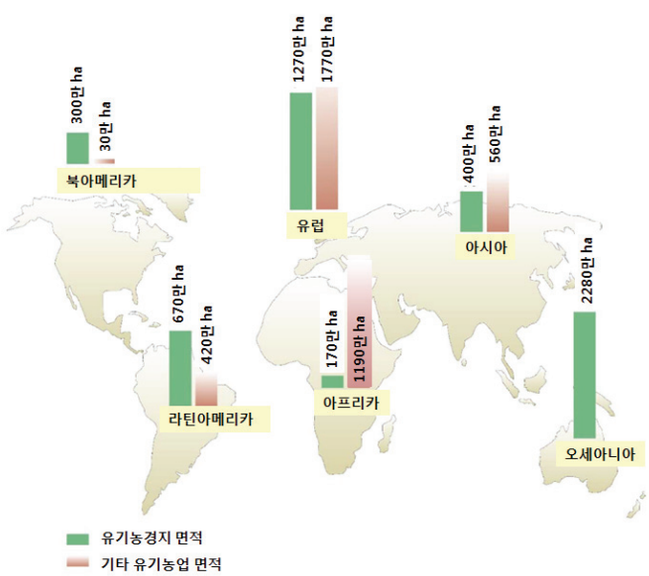
2015년 유기농경지 면적은 전년 대비 약 15% 증가

□ 2015년 전 세계 농경지의 약 1.1%, 총 면적 5,091만 ha에서 유기농업 실천

○ 2015년 유기농경지 면적은 1999년 대비 5배, 전년 대비 650만 ha로 약 15% 증가함.
- 전년 대비 증가면적은 대부분 호주의 유기농경지 증가분 440만 ha로 인한 것임. 미국(전년 대비 30% 증가), 인도(64%)에서도 각각 약 50만 ha가 유기농경지로 전환됨.
- 야생채집지 및 양봉지역 등 기타 유기지역 면적은 3,969만 ha로 유기농경지와 기타 유기지역을 포함한 총 유기면적은 9,060만 ha임.

○ 세계 유기농경지 면적의 45%는 오세아니아, 25%는 유럽에 위치하여 전 세계 유기농경지 면적의 70%가 두 대륙에 집중됨.
- 오세아니아의 유기농경지 비중은 5.4%, 유럽은 2.5%(유럽연합 6.2%)이며, 다른 대륙의 비중은 1% 미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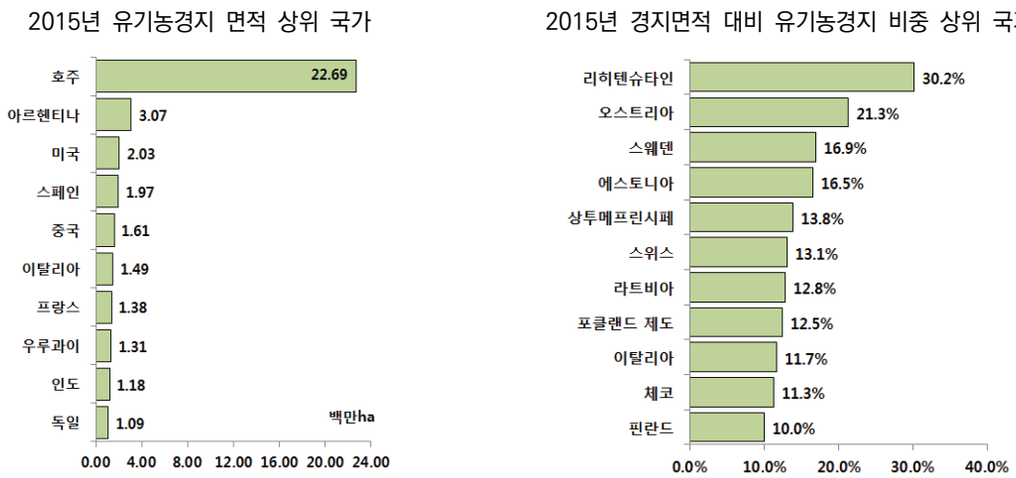
〈그림 5〉 2015년 세계 유기농업 실천면적 분포



자료: FiBL and IFOAM(2017).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2) 이 장의 내용은 FiBL and IFOAM(2017)의 주요 내용을 기초로 정리하였음.

〈그림 6〉 2015년 유기농경지 면적 · 비중 상위 국가



자료: FiBL and IFOAM(2017).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표 9〉 2015년 세계 유기농업 현황 주요 지표

지 표	총 규모	주요 국가
유기농업 시행 국가	172개국(2014) → 179개국(2015)	신규 국가: 브루나이, 카보베르데, 홍콩, 쿠웨이트, 모나코,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유기농경지	1,100만 ha(1999) → 4,370(2014) → 5,090(2015)	호주: 2,270만 ha 아르헨티나: 310만 ha 미국: 200만 ha
농경지 중 유기농경지 비중	0.99%(2014) → 1.1(2015)	리히텐슈타인: 30.2% 오스트리아: 21.3% 스웨덴: 16.9%
기타 유기농업지역 (주로 야생채집)	4,100만 ha(1999) → 3,760(2014) → 3,970(2015)	핀란드: 1,220만 ha 잠비아: 550만 ha 인도: 370만 ha
생산자 수	200만 명(2013) → 230(2014) → 240(2015)	인도: 585,200명 에티오피아: 203,602명 멕시코: 200,039명
유기농 시장규모	179억 달러(2000) → 800(2014) → 816(2015)	미국: 397억 달러(358억 유로) 독일: 95억 달러(86억 유로) 프랑스: 61억 달러(55억 유로)
일인당 소비액	10.05달러(2013) → 11(2014) → 11.1(2015)	스위스: 291달러(262유로) 덴마크: 212달러(191유로) 스웨덴: 196달러(177유로)
유기농업 규정 보유국	87개국(2015, 2016)	

자료: FiBL and IFOAM(2017).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2015년 세계 유기농 식품·음료 시장규모는 8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 호주의 유기농경지 면적이 2,269만 ha로 가장 넓고, 아르헨티나(307만 ha)와 미국(203만 ha)이 그 뒤를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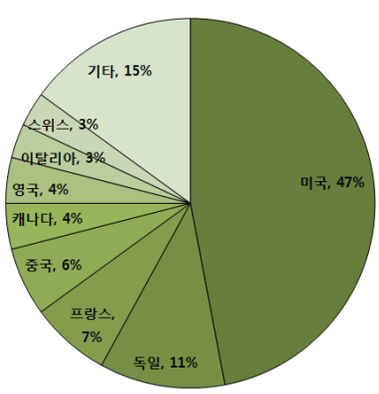
- 가축 방목지는 생산에 필요한 투입재가 비교적 적어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것이 용이한 편임. 농경지의 97%가 방목지인 호주 농업 구조의 특성이 유기농경지 면적 확대에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 유기농경지 면적 상위 10개국이 전 세계 유기농경지의 75%를 차지함.

○ 유기농경지 면적 비중이 10% 이상인 국가는 주로 유럽 혹은 도서 국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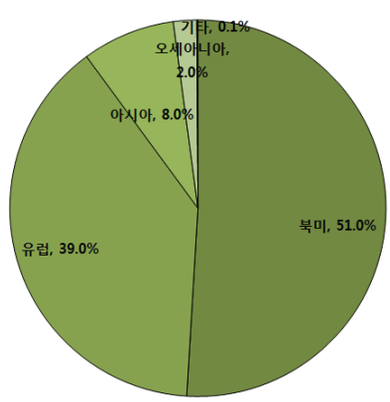
- 유기농경지 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리히텐슈타인으로 30.2%의 농경지가 유기농경지이며, 이어 오스트리아(21.3%), 스웨덴(16.9%), 에스토니아(16.5%), 상투메 프린시페(13.8%) 순임.
- 대부분 국가의 유기농업 실천면적은 1% 미만임.

〈그림 7〉 2015년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규모 분포

2015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국가별 분포



2015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 대륙별 분포



자료: FiBL and IFOAM(2017).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 2015년 세계 유기농 식품 · 음료 시장규모는 8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 지난 15년 동안 세계 유기농 식품 · 음료 시장은 356%, 유기농경지 면적은 240% 증가하여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 그러나 전 세계 유기농 식품 시장의 90%가 북미와 유럽에 집중되어 있고 유기농 식품 소비의 대부분이 소수 고정 소비자층에서 발생하는 등 수요의 편차가 큼(〈그림 7〉 참조).

○ 유기농식품 시장규모는 미국이 358억 유로로 가장 크며, 이어 독일(86억 유로), 프랑스(55억 유로), 중국(47억 유로) 순임.

- 전년 대비 두 자리대 시장 성장률을 보인 국가는 스페인(25%), 아일랜드(23%), 스웨덴(2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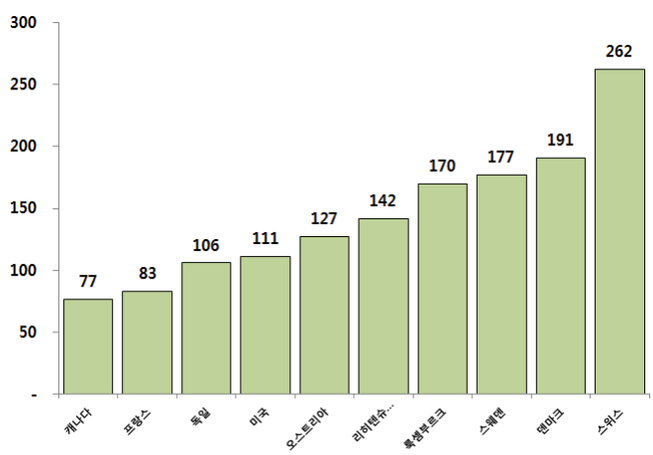
○ 유기농식품 시장 점유율은 덴마크(8.4%)에서 가장 높고, 이어 스위스(7.7%), 룩셈부르크(7.5%), 스웨덴(7.3%)임.

- 전년 대비 0.8%p 증가하여 전년에 이어 유기농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덴마크는 여러 판로 중 일반소매점에서 유기농 제품 판매 비중이 87%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음.

○ 1인당 유기농식품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스위스(262유로), 덴마크(191유로) 스웨덴(177유로) 순임.

- 국별로는 유럽국가에서 1인당 유기농식품 소비량이 가장 높으나, 대륙별 구분에서는 북미(108유로)가 가장 높음. 그러나 각국의 물가 차이를 고려한 값이 아니므로 절대적인 비교 수치가 될 수 없음.

〈그림 8〉 2015년 1인당 유기농식품 구입비중 상위 10개국



자료: FiBL and IFOAM(2016).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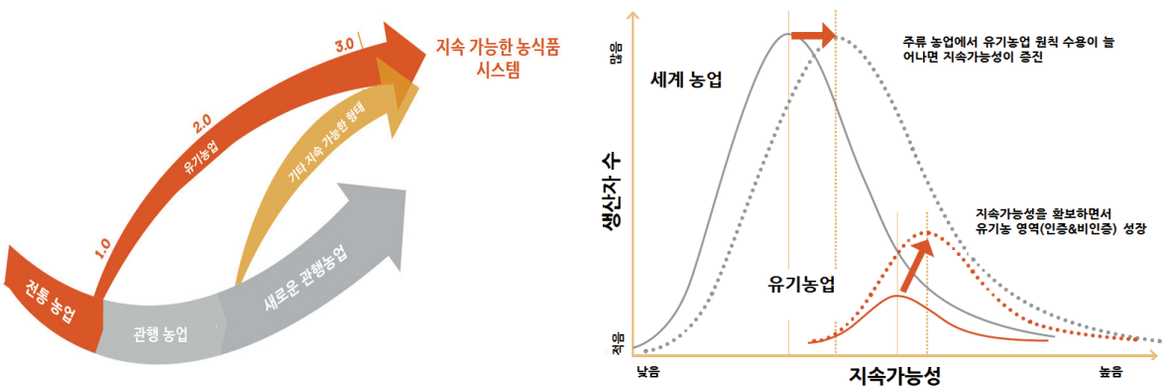
○ 유기농식품 구매 동기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름.

- 프랑스 소비자의 유기농식품 주요 구매 동기는 '건강', 독일은 '환경에 대한 관심', 덴마크는 '동물 복지', 미국은 '유전자 변형 식품을 피하기 위해서'임.

유기농업의 범위 확장을 위해 유기농 3.0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 중

- 따라서 유기농식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유기농식품의 홍보 방향, 더 나아가 유기농식품이 대표하는 가치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9〉 유기농업 3.0 패러다임



자료: Arbenz, M. et al.(2016). Organic 3.0– for truly sustainable farming and consumption.

□ 지속가능농업으로 유기농업의 범위를 확장하는 개념인 '유기농업 3.0'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 활성화[3)]

○ 유기농업의 과거 흐름을 구분하여 '유기농업 1.0', '유기농업 2.0'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2015년 이후 유기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유기농업 3.0' 패러다임 설정

- 유기농업 1.0은 100여 년 전 자연과 농업에 대한 연관성을 인식한 유기농업의 선구자들을 중심으로 유기농업이 다양한 접근 방법들을 통칭하였던 시기를 일컬음.
- 유기농업 2.0은 1970년대 유기농업 관련 규정이 도입되면서 유기농업이 인증을 통해 표준화된 시기로 인증면적과 소비가 빠르게 성장한 시기임.

○ 유기농업 2.0의 한계에 대한 인식 확산

- 유기인증을 목표로 두는 생산으로 인해 유기농업의 핵심철학이 간과되어 진정한 의미의 유기농업이 실천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또한 유기농업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생산자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옴.
- 경제적 논리에 구속되어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성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규모화와 작물의 단일화를 초래함.

3) Arbenz, M. et al.(2016)의 내용을 참고로 정리하였음.

- 인증 위주의 유기농업 개념은 농생태학, 공정무역, 소농 · 가족농 운동 등 기타 지속가능한 대안적 농업 형태와 유기농업 연계에 제약으로 작용함.

○ 유기농업 3.0은 유기농업 그 자체를 목표로 두는 인증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모범지침(Best Practices Guidelines)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유기농업의 위치를 생태 · 경제 · 사회 · 문화 · 책임성이 지역 상황에 통합된 농업 시스템으로 재설정함.

- 유기농업 3.0은 규범적이지 않고 실증적임. 최소 요건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지향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연계를 통해 지역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조정 가능한 모델임.
- 유기농업 3.0은 1.0과 2.0의 접근 방식을 일부 유지함. 유기농업 1.0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정부 · 민간의 규정과 같은 최소 요건을 기본으로 하면서(유기농업 2.0) 외적으로 확대를 꾀함.

○ 참여보증제도(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 PGS)는 지역에 초점을 둔 품질 보증시스템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유기농 생산자를 공인하는 시스템임.

- 참여보증제도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제3자 인증의 대안으로서 신뢰, 사회 네트워크 지식 교류를 기반으로 함.
- 생산자, 소비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유기농 표준 정의, 검증절차 수립, 유기농 생산자 승인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함.
- 2015년 기준 총 73개국에서 130,000명의 생산자가 연계된 250여 개의 참여형인증제가 시행 중임.

04 시사점 및 향후 과제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안정화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이 필요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토대 마련이 필요

○ 친환경농산물 국내 시장 확보에 또 하나의 걸림돌은 친환경농산물의 영세화와 이로 인한 공급 불안정성임.

-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공급불안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김창길 외 2016,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환경자원 관리 강화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2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호당 인증면적 증가추세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16년 유기농산물 호당 평균 인증면적은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음.

○ 또한 무농약농산물이 2007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불안정성의 주요 원인이 됨.

- 2012년 이후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실적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됨.
- 이에 반해 유기농산물의 생산은 큰 감소 없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기농산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 하지만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지역별 · 품목별 차이가 큰 편임.

- 지역별로는 과수 생산 위주의 경북지역과 제주지역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5년에 비해 증가함.
- 품목별로는 곡물류의 출하량은 다른 품목과는 달리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과실류와 채소류의 출하량은 2015년 감소하였다가 2016년 크게 증가함. 특히 과실류의 연도별 변동이 다른 품목별 변동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농가의 규모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기농산물 생산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지역과 품목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이 필수적임.

○ 2016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시장규모는 2025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뿐만 아니라 세계 유기식품 시장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816억 달러에 이름.

○ 농식품부는 2016년 3월 제4차 친환경농산물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016년 6,226억 원의 예산 투입 후 2020년까지 평균 3.7%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함.

○ 하지만 유기농업 2.0에서 알 수 있듯이,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과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 확보가 가장 중요함.

○ 또한 2012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시장 감소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2008년 이후 빈번하게 발생한 부실인증 사례임.

○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대책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인증체계를 2017년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을 관리하는 체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를 개편함.
- 따라서 인증체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민간인증기관의 역량 강화 방안과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

□ 지속가능한 농업생산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

○ 2012년 이후 친환경농업 감소의 주요 원인인 부실인증, 그리고 최근 친환경농가에서 발견된 살충제 계란 파동은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을 산업적 관점으로 접근한 결과임.

○ 유기농업 3.0에 대한 논의는 유기농업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기농업과 연관된 제반 시스템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유기농업 3.0의 모범지침 원칙은 유기농업의 범위를 인증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상황에 적합한 여러 지속가능한 영농방식을 유기농업으로 포함하고자 함.

상호준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인센티브 제고

○ 농식품부는 농림업의 환경보전 기능 강화를 위해 일종의 상호준수 프로그램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제4차 친환경농산물 육성 5개년 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준비 중임.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과 확산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생산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도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농업환경 지표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환경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친환경농산물 육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시장,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태 변화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 구축과 연구가 필요함.

○ 현재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며, 이는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행태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함.
-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과 인증량은 인증기관들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집계됨.
- 친환경농산물 가격 자료 또한 매우 제한적임. 구체적으로 농산물유통공사는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 자료만을 제공함.
-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유통 비중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였지만, 추정치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친환경농산물 관련 자료의 부족은 기존의 친환경농산물 관련 정책과 정책에 대한 농가 혹은 소비자들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함.

○ 마지막으로 이러한 객관적 자료의 부족은 자료 생성에 있어 친환경농산물 관련 이해 당사자 혹은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이는 자칫 연구의 객관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음.